

글 구조 중심의 글쓰기 방법

임성규(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차 례>

1. 조직하기의 이론
2. 조직하기의 과정
3. 글 구조로 글쓰기 교육 전략

1. 조직하기의 이론

1) 내용 조직하기의 개념

내용 조직하기는 내용 생성하기에서 다양하게 찾은 내용을 주제에 맞게 골라 글을 쓸 수 있도록 작성한 글의 계획서이다. 머릿속에 아무리 상세하게 구상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서론을 쓰고 본론을 써나가는 가운데 글은 일관성과 논리성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여 체계적인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상세한 계획서가 필요하다. 생성된 아이디어를 묶고 분류하는 범주화 전략, 조직화된 아이디어를 글 구조에 맞게 배열하는 글 구조 만들기 전략을 활용한다.

2) 내용 조직하기의 필요성

- (1) 글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다.
- (2)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쓸데없는 중복을 막아 준다.
- (3) 글의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

3) 내용 조직하기의 형식

(1) 화제형: 각 단계나 항목의 내용을 핵심적 어구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유형이다. 주제가 간단하고 줄거리가 단순할 때 사용한다. 뼈대만들기(다발짓기)와 같은 그림을 활용하여 글의 구조를 간단하게 표시하기도 한다.

(2) 문장형: 각 단계나 항목의 내용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 정리하는 유형이다. 주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분야의 것이어서 화제만으로 구체적 서술을 할 자신이 없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화제형 줄거리보다는 자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4) 내용 조직하기의 원리

- (1) 구성의 통일성 :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글이 전개되도록 한다.
- (2) 구성의 완결성 : 문제 제기(서론), 문제 해명(본론), 맺음(결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3) 구성의 연결성 : 앞뒤가 맞게 글을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 (4) 구성의 명료성 :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 (5) 구성의 다양성 : 제시된 논제를 여러 측면에서 언급해야 한다.
- (6) 구성의 참신성 : 주제에 대한 접근이 개성적이며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5) 내용 조직하기의 주의점

- (1)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한다 .
- (2) 구성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3) 체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4)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5) 수정에 주저하지 말자.
- (6) 줄거리대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

2. 조직하기의 과정

1)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 (1) 주제와 관련된 쓸거리를 찾는다.
- (2) 얻어진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정리한다. 주로 '주제문 →주요 논점→종속 논점→세목'으로 나누어 배열한다. 쓸거리를 찾거나 정리할 때 논증 방법의 논거 찾기, 추론하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 (3) 새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보충하여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마련한다. 세부적인 논거를 찾을 때는 다음 사항을 이용한다.
 - ① 자기 주변에 대한 관찰과 조사,
 - ② 면담과 질문, 독서와 사색, 체험과 기억 등.그리고 논거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① 믿을 만하고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
 - ② 필자나 독자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
 - ③ 풍부하고 다양할 것 등.

2) 선택된 재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기

(1)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좋게 주제의 성격이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 쓸 재료들을 일정한 순서로 잡는다. 재료를 배열하는 방법은 글의 구성 유형에 따르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순서에 따르는 구성법과 논리적 순서에 따르는 구성법이 있다. 그러나 논술문에서는 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론을 전개하기 좋게 배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① 자연적 구성 방법

(㉠) 시간 순서로 쓰기

(㉡) 장면 순서로 쓰기

② 논리적 구성 방법

(㉠) 사건 - 의미 부여하기로 쓰기

(㉡) 확인-반론하기로 쓰기

(㉢) 찬성 - 반대- 대안 제시하기로 쓰기

(㉣) 열거하기로 쓰기

(㉤) 문제의 원인과 해결하기로 쓰기

(㉥)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로 쓰기

(2) 글의 구조로 완성한다.

① 글의 구조는 구성의 종류에 따라 2단 구성(상대 주장 요약 - 반론 주장, 사건 소개 - 의미 부여), 3단 구성(도입(머리말, 서론, 起) - 전개(본문, 본론, 敍) - 정리(맺음말, 결론, 結)), 4단 구성(도입(起) - 발전(承) - 전환(轉) - 정리(結)), 5단식 구성(주의 환기 - 과제 제시 - 과제 해명 - 해명의 구체화 - 결론)등으로 구성하지만 대개 3단 구성법을 기본으로 한다. 3단 구성으로 했을 때, 각 부분에서 서술해야 할 내용을 참조하여 자료를 배열하되 서론이나 결론보다 본론을 길게 하여 '서론 : 본론 : 결론'의 비율이 '2 : 7 : 1'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② 각 단계에서 서술할 내용

(㉠) 서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논지 제시, 집필 동기, 방법론 등을 기술한다.

(㉡) 본론: 문제에 대한 의견,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다. 주장하는 중심 내용의 전개와 논거를 제시한다.

(㉢) 결론: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논지의 요약, 정리, 앞으로 남은 과제, 전망 등을 기술한다.

3) 글의 뼈대 만들기

(1) 주제를 살릴 수 있는 제목을 정한다.

(2) 제목 아래 주제문을 쓴다.

(3) 글의 구조를 '서론 - 본론 - 결론'의 순서로 잡는다.

(4) 주제의 내용을 두 가지 이상의 주요 논점으로 나누어 큰 항목으로 정한다.

(5) 각각의 큰 항목 아래 종속되는 작은 항목을 정한다.

(6) 각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에 일관성 있는 번호를 붙인다. 이 때 같은 계열의 번호에는 대등한 내용이 놓여야 한다. 번호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① 수문자식 부호법(1. 1) A. a. 가. 가) ㄱ ㄴ 등), ② 숫자식 부호법(1., 1.1, 1.1.1 등).

(7) 줄거리 내용은 주제와의 관련성을 살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과감히 고친다.

4) 글빠대 만들기 전략

사고 조직하기 전략으로는 개요짜기와 글 빠대 만들기 등이 있다. 개요짜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나 아이디어의 흐름을 묶어 버리고, 딱딱한 형식에 맞추어 가야 한다. 또 학생들이 개요표를 만들기를 어려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요표를 만들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글의 개요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다발짓기(Clustering), 그래픽 조직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읽기에서 글의 구조를 요약하는 전략인 ‘빠대 만들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쓰기에서도 ‘글 빠대 만들기’라 부르기로 한다. 글 빠대 만들기는 일정한 형식에 맞출 필요가 없이, 사고나 아이디어의 흐름과 속도, 방향, 범위가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다발을 조직해 그림으로 글의 조직을 표시해 간다. 빠대 만들기는 문장식에 비해 사고를 유연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글의 구조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만드는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아직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지 못해서 글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짜지 못하고, 글의 개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글을 쓸 때에 그 개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용한 전략이다.

[표 1] 문장형 개요형과 그림식 빠대형의 비교

개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나 아이디어를 내는 속도와 범위를 한정한다. (2) 충분히 사고하고 아이디어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체계화해야 한다. (3)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나 아이디어의 흐름을 묶어 버리고, 딱딱한 형식에 맞추어 가야만 한다.
빠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나 아이디어가 나오는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 계속 써 나갈 수 있다. (2) 딱딱한 형식에 맞출 필요가 없다. 사고나 아이디어의 흐름과 속도, 방향, 범위가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동아리를 조직해 간다. (3) 글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 유형의 쓰임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3. 글 구조로 글쓰기 교육 전략

1) 사건 순서로 쓰기

(1) 개념: 사건과 행동이 시간적으로 움직이거나 진행되는 변화 과정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즉 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적어 나타내는 것이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행동이나 사건에 관련된 시간을 명확히 제시한다.
- ② 의미 있는 사건을 단일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하되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표현한다.
- ③ 간결하고 요약적인 자세로 사건의 경위를 부분으로 나눠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표현한다.
- ④ 실제 글에서 서사는 다른 서술법과 더불어 쓰인다. 특히 수필 등에서는 묘사나 설명과 함께 쓰여 효과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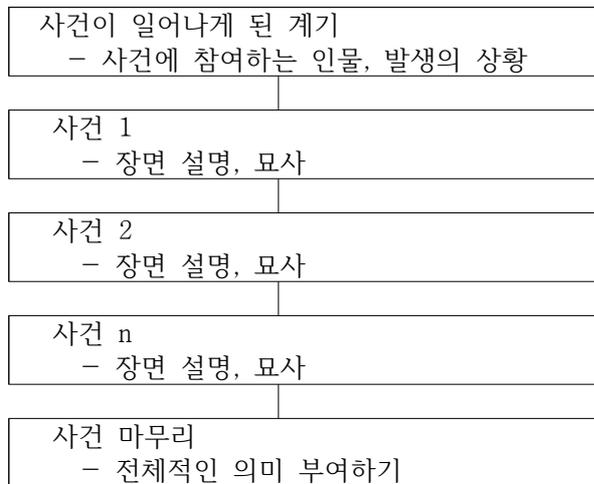
(2) 구조

처음 - 이야기 배경, 최초의 행동 제시

중간 - 사건이나 행동 전개에 따르는 의미 있는 행위의 순차적 제시

끝 - 이야기의 마무리, 전체적인 의미 제시

(3) 글 뼈대 만들기



(4) 활용: 독자들이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를 뚜렷하게 재생하여 이해하게 하거나 상상하게 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글에 흥미를 더한다.

이야기 글, 기행문, (만들거나 짜맞추기, 요리하기 등과 같이) 일정한 순서나 절차에 따라 설명하는 글을 쓰는 데 적합하다.

(5) 적용 예시

오늘은 실과시간에 조별로 음식 만들기를 했다. 우리 조는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불을 사용하지 않아서 불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다른 음식들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재료는 참치 통조림, 식빵, 오이, 양파, 소금, 마요네즈, 후춧가루, 버터가 필요하다.

참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은 첫째, 오이와 양파를 채 썰어서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고 10분 동안 절인 후에 물에 행궈서 물기를 꼭 짜준다. 그런 다음 참치는 체에 받쳐서 기름기를 빼준다. 재료를 채 썰 때에는 갈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볼에 기름기를 빼주었던 참치와 썰어놓은 오이, 양파를 같이 넣고 소금, 후춧가루, 마요네즈로 간을 하여 버무린다. 이때 소금과 후춧가루의 맛이 너무 세지 않도록 소금과 후춧가루는 조금만 넣어준다. 그리고 재료와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버무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식빵의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 정리한 후에 식빵의 한쪽 면에 버터를 골고루 펴 발라준다. 이때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식빵에 물기가 잘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버터를 바른 식빵에 버무려놓은 재료들을 올려준 후 다른 식빵 한 장으로 덮어준다. 이때 식빵 사이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너무 적거나 많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다음 먹기 좋게 2등분이나 4등분하여 접시에 놓는다.

직접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는데 방법이 매우 간단하여서 혼자서도 집에서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집에서 혼자 만들어 볼 때에도 주의사항을 생각하며 만들면 맛있는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2) 장면 순서로 쓰기

(1) 개념: 묘사란 정지 상태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느낌이나 인상을 형태, 색채, 감촉, 소리, 맛 등을 이용하여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리는 서술 방법이다. 정지 상태의 대상이란 일정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놓여 있는 사물을 말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건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서사와 다르다. 또 묘사는 대상의 겉모양이나 빛깔 또는 외형적 구조나 특징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글쓴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이하는 설명과도 다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제한 외(1997)-

① 정적인 상태를 사진으로 찍듯이 밝힌다.

② 사물의 일정한 현상에 대해 지배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그들의 특징과 양상을 그려내는 기술 양식이다.

③ 묘사는 사물을 그려나감에 있어서 대상의 부분이나 세부를 나열하는 것이라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간의 조화와 유기적 연관을 견지하면서, 글쓴이의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인상을 통일성 있게 그리는 것이다.

④ 실제 글에서 묘사는 다른 기술법과 함께 쓰인다. 소설 등에서는 묘사가 서사와 함께 쓰이고, 설명이나 논증과도 결합하여 그것들의 효과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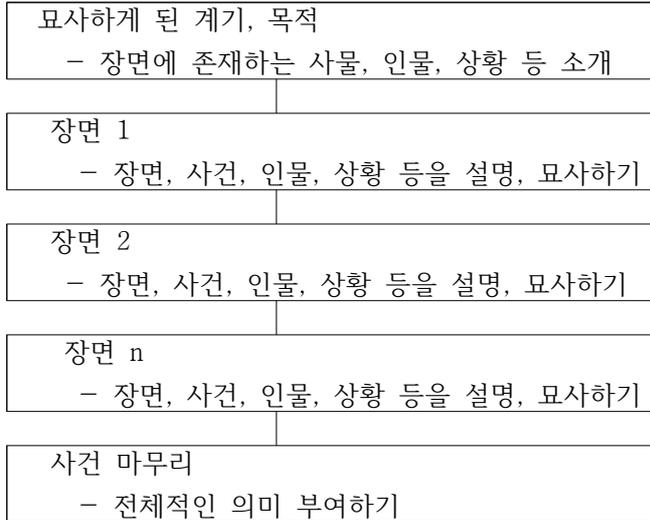
(2) 구조

처음- 묘사의 대상 제시

중간 -의미 있는 묘사 대상의 순차적 제시

끝 - 전체적인 의미 제시

(3) 글 뼈대 만들기



(4) 활용: 독자의 마음 속에 상상 작용을 일으켜 묘사 대상을 직접 대할 때와 같은 구체성과 감각성을 느끼게 한다. 설명하는 글, 기행문 등을 쓰는데 유용하다.

(5) 적용 예시

<에스려움이 묻어나는 교토여행>

올 봄,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여름방학 때, 일본여행을 가기로 했다. 친구와 부랴부랴 항공편과 숙소를 예약하고 가이드북을 사서 여행코스를 정했는데, 교토가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6박 7일 중 이틀을 교토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교토는 일본의 옛 유적들이 많아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아서 갈 곳을 정하기 힘들었는데, 결국 유명하고 교통편이 편리한 곳 위주로 돌아보기로 결정을 했다.

산쥬산겐도

숙소가 있던 오사카에서 JTR을 타고 교토의 시치조역에서 내려 교토여행을 시작했다. 역에서 내려서 산쥬산겐도로 가려고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고요하고 깨끗한 길이 눈에 띄었다. 여름의 교토는 무덥고 햇볕이 굉장히 따갑고 비가 추적추적와서 끈끈한 날씨였는데, 그 날씨와 교토의 에스렵고 한적한 느낌이 어우러져서 오래된 사진같은 느낌이 났다. 산쥬산겐도는 금으로 된 천수관음상이 1001개나 있는 사찰로, 이 1001개의 관음상의 얼굴을 쪽 보다보면 보고싶은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 이었다. 사찰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일본 사찰 특유의 어두운 목조 건물과 소박한 정원이 어우러져서 조용히 사색하며 산책하기 좋은 곳 이었다. 산쥬산겐도에서 나와서는 쇼핑거리인 교쥬자카와 산넨자카, 니넨자카를 지나 청수사(기요미즈데라)를 갔다.

청수사(기요미즈데라)

청수사는 교토남부에 있는 절로, 기요미즈는 성스러운 물을 뜻하며, 이 물을 마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 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고 유카타를 입고 놀러온 현지인들도 많아

일본에 온 느낌이 확 들었다. 본당에 가기 전에는 근처에,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바위가 있었는데, 지정된 자리에서 눈을 감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바위까지 무사히 가서 손을 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가진 바위였다. 여기서는 수학여행을 온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눈을 감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바위로 더듬더듬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외국인, 현지인 할 것 없이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응원해주었다. 본당으로 가기위해 목조계단을 오르던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기념품만 구경하다가 본당으로 올라갔다. 본당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시원했고 교토 시내의 모습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니조조

교토에 온 둘째 날은 일본 전통의상을 빌려 입고 돌아다녔다. 유카타를 입고 가려는 목적지인 니조조방향의 버스를 탔다. 니조조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과거 16세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도쿠가와 쇼군시대의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물에 화려한 금장식들이 많았고 고가의 그림이 많았다. 또한 굉장히 넓어서 이날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다녀야 했다. 이 안에서는 일본의 정원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사찰에서 봤던 정원과는 비교가 안되게 그 규모가 매우 컸다. 모든 것이 정말 잘 보존된 곳 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생각하면서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니조조를 돌아다니는 동안 유카타를 입은 모습이 신기했던지 많은 외국인들과 심지어 현지인까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좀 당황스러웠었다.

교토는 전반적으로 옛 것과 현대의 것이 잘 어우러진 도시였고, 일본 특유의 미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즐겁게 돌아다녔었다. 또한 다음번에는 다른 계절에도 한 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3) 사건 - 의미 부여하기로 쓰기

(1) 개념: 사건을 앞에 쓰고 뒤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 전반부의 사건을 쓰는 방법은 앞의 사건 순서로 쓰기와 같고, 후반부는 자신의 경험을 쓰거나 사실 설명을 곁들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쓴다.

(2) 구조

처음 -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중간 - 1. 일어난 사건 소개하기

(2.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을 제시하기)

끝 - 전체적인 의미 부여하기

(3) 글 뼈대 만들기

사건이 일어난 계기, 상황 소개
- 장소, 인물 묘사, 설명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기
- 장소, 인물 묘사, 설명)

독후감을 쓰게 된 계기

읽은 책 요약하기

의미 부여하기

<사건 소개형>

의미 부여하기

<독후감형>

(4) 활용: 사건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독후감을 쓰는데 유용하다.

(5) 적용 예시

우리는 똑같은 친구 <‘내 짝궁 최영대’를 읽고>

며칠 전, 뉴스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한 학생을 따돌림하여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보았다. 너무나 충격이 컸다. 같은 반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그런 일이 생기다니 말이다.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나도 혹시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무심코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중 학교 친구들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우리 반 친구들과 올바른 교우 관계를 맺고 좋은 우정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내 짝궁 최영대를 읽게 되었다.

어느 반에 최영대란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었다. 최영대는 옷도 피죤피죤해서 주변에 안 좋은 냄새가 났고, 말도 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 친구들은 친하게 지내지 않고 선생님 몰래 놀리면서 영대를 무시한다. 그렇게 영대를 놀리면, 영대는 아무 말 않고 울기 일쑤였다. 영대를 놀리며 무시하던 게 지속되던 중, 반 전체가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즐겁게 수학여행을 즐기며 놀지만, 영대는 혼자 침울하게 돌아다니기만 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어, 친구들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잠을 자게 되었다. 그 때, 누군가가 방귀를 끼었는데 친구들은 냄새가 난다며 방귀를 핀 사람이 영대라고 몰아간다. 영대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평소보다 더 서럽게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린다. 놀리던 그 친구들은 당황하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방으로 들어와 영대를 달래며, 친구들을 꾸중하였다. 알고 보니 영대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밤늦게 혼자 일하고 들어오시는 힘든 환경에 있었다. 다음 날, 친구들은 미안한 마음에 기념품을 사서 영대에게 하나씩 선물하고 잘 대해주겠다고 지난 밤의 일에 대한 사과를 한다. 버스 안 영대의 가방엔 친구의 기념품이 가득했고, 영대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수학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친구들은 영대에게 먼저 다가가 친하게 놀았고, 공부도 도와주었다. 영대도 옷도 깨끗하게 바꿔 입고 말도 친구들과 자주 하였다. 그렇게 그 반에 웃음이 많은 밝은 친구 한 명이 더 생기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뉴스가 다시 생각났다. 그 뉴스에서도 친구를 따돌린 이유가 자신과 조금 다르고 부족해 보인단 이유였다. 남들과 다르다고 괴롭힘을 받아야 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친구라면 그런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구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 친구가 영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을 수도 있으니 무작정 놀리지 말고 그 친구의 입장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느꼈다. 만약에 내가 영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밝게 지내진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이해해준다면 학교폭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만 다르지 속은 다 같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4) 확인-반론하기로 쓰기

(1)개념: 찬반의 대립된 주장이 제시된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하여 전반부에서는 반대쪽 입장을 먼저 요약하고 후반부에서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진 견해에 대해 비판만하기도 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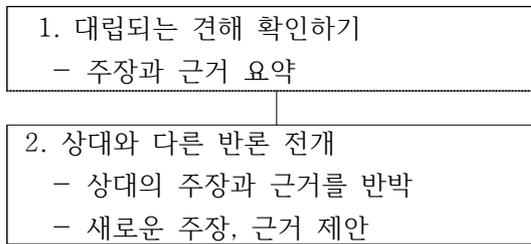
외에 제3의 견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확인-반론하기’의 글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간적인 입장에 선다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 의견에 대한 비판보다 자신의 주장이 더 길어야 한다. ‘교복 착용에 대해 찬반의 입장, 인간의 본성은 착한가 혹은 악한가’ 등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를 펼치기에 적합하다.

(2) 구조

처음- 대립되는 견해의 요약(주장과 논거)

끝 - 자기 주장과 논거 제시로 반론 전개

(3) 글 뼈대 만들기



(4) 활용: 토론을 하고 어느 한쪽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반론을 제시하는 주장과 근거를 밝히는 글을 짧게 쓰는데 유용하다. 논술의 기본 틀을 연습하는 데 유용하다.

(5) 적용 예시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는 것은 옳은가?>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에는 사진, 시계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핸드폰도 사적 재산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첫째, 핸드폰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걷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문자를 하거나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톡 스토리를 사용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까지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핸드폰이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시간이 많아지면 사용 시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두통, 시력저하, 백혈병, 뇌종양은 물론이고 인체에 누적되어 뇌파 혼란 초래 및 암 질환 유발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마저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질병들에 걸리기 쉬울 것입니다.

셋째, 핸드폰은 학업에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은데 손에 핸드폰을 쥐어준 뒤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성적이 떨어졌다고 응답하였고 한 학생은 ‘친구들이랑 계속 채팅하고, 그래서 공부할 때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만은 휴대폰 사용을 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5) 찬성 - 반대- 대안 제시하기로 쓰기

(1) 개념: 서로 모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正→反), 그 종합적인 견해를(合)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본론을 전개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가,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와의 관계'와 같이 어느 쪽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어느 한쪽을 옹호할 수 없는 문제를 펼치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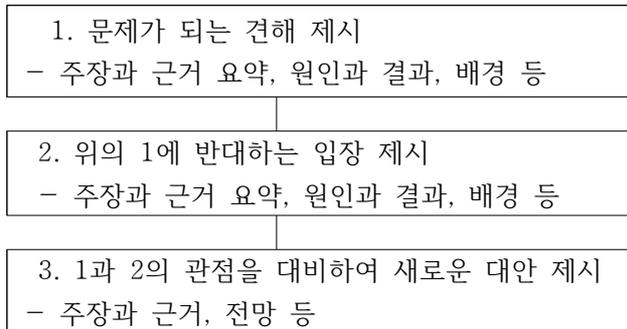
(2) 구조

처음 - 정(正):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중간 - 반(反): '정' 단계의 모순을 밝힌다.

끝 - 합(合): '정'과 '반'의 두 관점을 종합, 통일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3) 글 뼈대 만들기



(4) 활용: 논술을 할 때, 대립하는 두 관점을 대비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글을 쓰는데 좋다.

(5) 적용 예시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말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도대체 국정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국정화는 단지 국가에서 정한 방침대로 이끄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뭔가 더 이상하다. 단지 국가에서 정한 것인데 왜 이렇게 찬반 토론이 열띤 것일까. 그것은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교과서의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들은 교과서 국정화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내용을 배우므로 이념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시에 수능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도 모두 같은 내용을 배우므로 수험공부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현재의 교과서가 좌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정화를 한다고 해서 편협한 역사 사고를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그들은 반박하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다양한 관점, 해석을 동시에 하나의 교과서에 담아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종 검정교과서 중 1종만 선택해서 택일된 편협한 하나의 해석만 배우는 것이야말로 빼놓아진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남북대치의 특수한 상황인 한국은 교과서의 국정화가 의미가 있다는 점 또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상대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의 국정화는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이념 갈등이 심한 곳이라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즉 5년마다 교과서를 바꿔야 하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다. 이는 5년마다 좌우 정치색으로 인해 교과서의 내용이 중심을 잃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들은 역사란 다양한 역사가에 의해 해석되고 재구성되며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정부에서 강제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화가 진행된다면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나 견해의 가치가 떨어지고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국정화 교과서라는 하나의 정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다양한 역사관 형성이 힘들어진다고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좌편향된 교과서를 중립적 위치로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오직 그것만 올바르게 고치면 되지, 굳이 교과서를 국정화 시켜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제시된 양 주장에 대한 대안은 이렇다.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는 것은 전혀 그르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교과서를 국정화 시켰을 때 그 교과서 내에 섞일 정치색, 역사왜곡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제지하면 될 일이다. 역사 교과서를 만들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분야에서 서로 반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을 같은 인원에 맞게 초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가 한쪽으로 치우친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상황을 멸할 수 있으며, 한 교과서 내에서 다양한 역사적 견해를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 책임자를 정치색과 당파에 물들지 않는 자를 선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결재를 받을 때에 책임자가 만약이라도 편향된 교과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배울 수 있는 중립적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겠다.

6) 열거 방식으로 쓰기

(1) 개념: 대등한 특성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요인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결과를 분석하거나, 특정 문제의 중요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글 전체를 열거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글의 일부를 이런 방법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다. ‘첫째, …… 둘째, ……’ 등으로 배열되는 것은 열거식 전개 대표적인 예이다. ‘고전 읽기의 의의,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학 입시의 부활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과 같이 ‘어떤 문제의 의의, 어떤 문제의 영향과 결과’를 다루는 글을 쓸 때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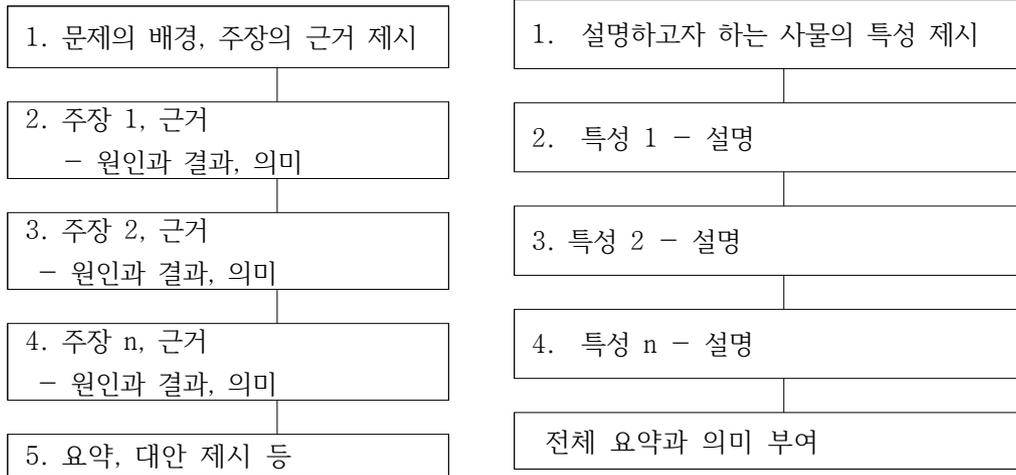
이 방법으로 본문을 전개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각 부분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배열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술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열거할 만한 근거를 먼저 밝히고, 중요도에 따라 첫째, 둘째 등으로 열거하여 생각나는 대로 쓴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다.

(2) 구조

처음 - 문제의 배경, 주장을 생각하게 된 근거 제시
 중간 - 주장과 근거를 나열하여 밝힌다.
 끝 - 요약하기, 대안 제시 등

설명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성 제시
 특성에 따라 자세히 설명한다.
 전체 요약과 의미 부여

(3) 글 뼈대 만들기



(4) 활용: 몇 가지의 특성에 따라 설명하는 글쓰기,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결과를 분석하여 특정 문제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논술 쓰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5) 적용 예시

<성형미인은 언제까지 손가락질 받아야 할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던 미모의 여자 연예인은 성형 전의 과거 사진이 밝혀짐과 동시에 성형미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만인의 동경을 받다가 이제는 그 외모 때문에 비난을 받는 일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누가 봐도 예쁜 얼굴에 멋진 몸매를 가진 여자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주변의 눈길은 곱지 않다. 무조건 성형 했을 거다, 저렇게 하면 내가 더 예쁘겠다. 등등 그 여자는 이러한 수군거림을 감당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미용의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의 풍토에 따라가려는 개인의 노력은 왜 사회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걸까?

성형수술은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가려는 개인의 노력이다. 이러한 성형수술이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서술하려고 한다.

첫째,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유의지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유의지를 갖는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고유한 권리일 것이다. 따라서 성형에 대한 선택 또한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고 의지이다.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부작용, 성형중독을 통해 성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외모는 하나의 스펙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한

다. 현재는 외모 역시 일종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이다. 취업 면접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 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73%가 면접 시 첫인상 때문에 지원자에게 감점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을 통해 자신의 외모라는 스펙을 높이려는 노력은 절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셋째, 성형수술이 외모지상주의를 심화시킨다는 해석은 오역이다. 성형이라 함은 '모습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의 외관이나 특징을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바꾸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와 사회에서 접하는 외모지상주의는 이러한 성형을 정형화된 외모로 자신을 바꾸는 개성을 상실하는 행위로 오역하고 있다. 이는 앞뒤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성형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눈 크고 코가 오뎅한 표준화된 외모를 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한 사람이 예쁘다는 가치관이 생긴 이후로 사람들은 형으로 이를 행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방향의 성형이 미에 대한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키운 것이 아닌,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된 방향의 성형을 키운 것이다.

성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숨겨야 할 주제가 아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필요와 요구도 함께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변화한다. 지금은 불가피한 과도기 상황이지만 그 가치관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7) 문제의 원인과 해결하기로 쓰기

(1) 개념: 주어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나아가 그 대책까지도 마련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본문을 전개할 때는 구체적인 예화나 통계 자료를 들어 진술하는 것이 좋다. 그럼으로써 문제를 좀더 실감 있게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인과 해결 방안도 현실성 있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공해의 문제, 노숙자 문제의 해결 방안'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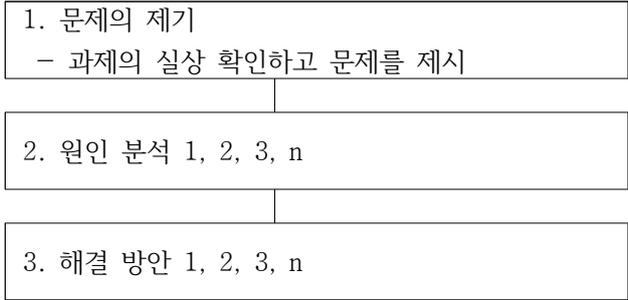
(2) 구조

처음 - 문제를 제기한다.

중간 - 원인을 분석한다.

끝 -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3) 글 뼈대 만들기



(4) 활용: 문제의 원인에 따라 해결 방안을 다르게 검토하는 논술을 쓰는 데 유용하다.

(5) 적용 예시

<대학입시경쟁 과열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제시>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 입시의 문제는 매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취업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입을 위한 경쟁은 과열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글로벌 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처럼 비효율적인 입시 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입시 전형 자체의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에 위한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물론 수시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그리고 대학별 교사의 성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뽑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획일화된 방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으며, 방법이 모두 동일한 만큼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학교 교육이란 단지 좋은 대학 진학을 이루어주는 것 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등 다양한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중, 고등학교의 공교육은 지나치게 입시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져있다. 그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대입에 치우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교사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지도 못하며, 사교육을 조장함으로써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입시 경쟁의 과열을 야기하는 마지막 원인으로는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진로교육이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통해 고려해보는 직업군은 채 100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취업을 위해 같은 길을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입 경쟁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대학 입시 전형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시와 정시라는 두 가지 전형만으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입시 방법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정해진 입시 기간에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시 경쟁 과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공교육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다양화 된다면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교육과는 차별화 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직업관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해결 방안으로는 진로 교육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현실적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는 방법이 꼭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교육을 확대, 강화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들을 심도 있게 체험해보고 그 진로와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탐구해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단순히 남들처럼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입시 경쟁의 과열화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혹은 학생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입시 경쟁이 더욱 과열된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반감만을 가진 채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구조 개선을 통한 대학 입시 문제 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8)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방식으로 쓰기

(1) 개념: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에 대해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들어 설명 대상들의 특성을 알려 주는 방식이다. 비교와 대조에 의해 글을 전개할 때에는 기준을 설정한 후 대상들을 여러 각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대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만을 기술하고 끝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필자의 견해가 없는 글이 되고 만다. 따라서 반드시 비교나 대조 대상의 장단점을 어떻게 취사선택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본론이나 결론에서 밝혀야 한다. '세계화 추세에서 대가족 제도의 장단점, 영어 조기 교육의 장단점' 등과 같이 두 대상의 장단점을 다루는 글을 전개하는 데 적합하다.

(2) 구조

처음 - 비교, 대조의 기준 설정을 한다.

중간 - 기준에 따라 A, B를 비교하거나 대조한다.

끝 - 의견 제시(대상들을 비교와 대조한 결과 선택이나 개선할 점을 제시)

(3) 글 뼈대 만들기

1. 두 대상의 소개, -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기준 서술	1. 두 대상의 소개, -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기준 서술
2. 대상 A의 공통점, 차이점을 기준에 따라 기술	2. 대상 A와 B의 공통점을 기준에 따라 기술
	3. 대상 A와 B의 차이점을 기준에 따라 기

3. 대상 B의 공통점, 차이점을 기준에 따라 기술

술

4. 의견 제시(대상들을 비교와 대조한 결과 선택이나 개선할 점을 제시)

4. 의견 제시(대상들을 비교와 대조한 결과 선택이나 개선할 점을 제시)

(4) 활용: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글쓰기, 대립하는 두 관점을 대비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을 찾거나 공통점 혹은 차이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유용하다.

(5) 적용 예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오늘 우리 반 연희가 뭔가 달라졌다.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연희를 바뀌게 한 것은 바로 안경이었다. 연희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집에서 안경을 찾지 못하여 쓰고 오지 못한 것이다. 남자 아이들은 연희가 안경을 벗어서 이상하다며 놀려댔고 여자아이들은 안경 벗은 것이 훨씬 예쁘다며 연희 곁으로 몰려들었다. 나도 안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안경 대신에 렌즈를 한 번 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렌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에서 안경과 렌즈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안경과 렌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안경과 렌즈는 우리가 앞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우리의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들의 눈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안경과 렌즈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렌즈는 안경보다 작고 얇아서 잃어버리기 쉽다. 또한 각막에 바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한다. 안경과 달리 렌즈는 하루에 착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있다. 너무 오래 착용하면 눈의 건조함을 느끼게 하거나 눈의 충혈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안경은 착용했을 때 걸어서 드러나며 우리의 얼굴을 변형시킬 수 있다. 또한 격한 운동을 할 때에는 안경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렌즈와 안경의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안경이 더 오래 착용할 수 있고 눈에 안전하지만 외관상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에서 아름다움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